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문화사적 접근을 향하여

Toward the Cultural Approach to the Discipline of Korean Design History

고영란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

Ko, Young-Lan

Division of Media-Contents-Design, Hansung University

• Key words: Cultural History, Micro-History, Design History of Korea

1. 서론

요즘 역사학계에서 '문화사(cultural history)'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사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적 업적이라고 평가되는 '사회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결과이지만, 그 시점이 대체로 현실사회주의의 물락이 가져온 거대 이데올로기의 종언,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침식하는 페미니즘적 시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지구 차원에서의 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뉴미디어가 부쩍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시기와 중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사 인식 틀의 문화사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청임을 알 수 있다. 디자인사학계도 역사학계의 이러한 인식론적 지각변동에 초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또는 하위문화(sub-culture) 등 다양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디자인 역사편찬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디자인사학계에 문화 관련 연구풍토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화사적 접근방식이 구미의 디자인사 연구를 비롯한 제 학문 분야에서 현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사 관련 연구의 경우, 역사를 보는 시선이 아직은 거대담론의 시각에 종종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사학계의 근현대 디자인 현상에 대한 역사적 인식망은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둔 '아래로부터의 역사'이기보다는 식민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근대화 논쟁에서 예견할 수 있듯이, 정치,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 조망하는 '위로부터의 역사'에 주로 관심을 집중시켜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대성 논의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자장 안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사회적, 권력적 근대화와 함께 근대성이 일상적 삶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일상적, 개인적, 문화적 근대화라는 두 측면이 내재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문제는 환원주의적 역사 방법론과 그것이 기초하는 역사 결정론적 시각이다. 역사가 그 무엇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 내지는 결정론주의가 발산하는 완전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자발적인 디자인 행위로 구현된 구체적 삶의 표상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국디자인의사를 일상 문화적인 시각을 통해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전체적 역사(total history)'를 구현한다는 이상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명인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미시사(micro-history)"²⁾적 연구방법이 특히 유용하다. 미시사적 접근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중심의 주류 역사편찬 과정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작은 이야기를 되살려내어 그것이 한국 디자인의 전체 역사에 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김기봉, "단단한' 근대와 '부드러운' 근대: 한국 근대화의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비평적 성찰," 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 창간호, 푸른숲, 2000, pp. 141-70.

2)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p.12

2. 대안적 역사 서술방식과 문화사

19세기에 들어서서 역사학은 원사료에 대한 엄밀성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과학적 역사연구의 일차적 대상을 국가로 지목하면서 각 국가의 정치와 외교의 역사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관행은 사회사의 도전을 받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사회사의 등장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지배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정치사적 서술방식에 대해 배제된 대다수의 민중들의 목소리를 역사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30년도에 출판된 아날학파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출현한 일단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에 의해 주창된 사회사는 역사연구의 대상을 민중으로 확대하였다. 그들은 정치 권력자나 정치제도 보다 노동자나 여성 등 역사 속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평범한 계층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사의 단점이 드러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아날학파에게 비판이 제기 되었다. 역사의 모든 현상을 경제적 결정론으로 환원시켜 계급투쟁이라는 기본 구조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문화적 방식(상부구조)이 물질적 경험(토대)에 미치는 자율적 효과에 주목하는 일단의 역사가들에 의해 이론적 균열을 가져왔다. 상부구조는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종래의 마르크스 이론은 새로운 역사적 인식 틀로 무장한 문화사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한편 대중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사를 물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아날학파의 초기 연구는 지나치게 통계적 방법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질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특정 사회집단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관이나 정신적 태도를 지시하는 '망탈리테'³⁾라는 개념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아날학파 내부에서 문화사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문화사적 시각의 역사 읽기는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⁴⁾ 같은 종전과 다른 해체주의적 역사인식 방법을 통해 역사서술의 중심점을 다변화시킴으로써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그 역사를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작은 것'과 '낮은 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사는 이전까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어 인간 실존의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역사에서 소외된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의 뉘를 되돌려 줌으로써 좀 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성찰적 세계관을 지향한다는

3) "망탈리테"란 지리나 기후와 같은 장기지속적인 조건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집단적인 사고방식, 생활습관 같은 것을 의미한다." ibid., p.39.

4)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역사학이 유지해왔던 역사의 이해와 서술방식을 해체시키는 작업이다. 이것은 우리가 비판의 정신을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정형화된 틀을 깨뜨리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단지 파괴를 위한 깨뜨림이 아니라 그 정형화된 틀을 새로운 방식으로 성찰하여 더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주문이다." ibid., 15.

점에서 문화사의 목적은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를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사의 한계를 감싸 안으면서 사회사의 실천 강령을 계승발전 시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대안 담론이다.

3. 문화사적 시각으로 양갑조 할머니의 생활박물관 읽기

한국디자인사의 문화사적 접근 사례로 올해 87세의 양갑조 할머니가 결혼 70주년 기념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선보인 생활박물관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한국디자인사의 거시적 담론 속에 묻혀버린 민초들의 일상적인 삶의 궤적들 --이 경우, 한 솥씨 좋은 할머니가 10세 (192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80년 동안 담담하게 제작해 온 규방 공예품들-- 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탐색 작업을 통해 작지만 다차원적인 한국 디자인의 의미소를 발견해 냄으로써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양갑조 할머니가 가사를 돌본 후 남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평생을 수행하듯 만들어 온 비늘삼, 골무, 상보, 모시조각 저고리 등의 섬유 공예품을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 같은 문화사적 시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돋보기로 확대해서 들여다보듯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망원경을 통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중층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할머니의 생활박물관이 지닌 역사적 텍스트의 의미를 복합적인 그물망 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접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분석 외에 가능하다면 양갑조 할머니와의 구두 인터뷰를 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적' 디자인사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가족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물을 창조해냈는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가가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서술하는데 있어 주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 바깥에 존재하는 가부장제도 같은 사회구조가 보통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일반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물을 물신화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늘 보아왔으므로 그 의미를 인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평범한 사물 속에 숨겨진 한국의 여성집 여인들의 보편적 '망탈리테'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건으로 촉발된 의도적인 이데올로기 보다 더 잠재적이고 장기지속적인 한국 문화의 원형질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역사의 초점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미시사적 주장은 정당하다.

4. 결 론

한국디자인사의 연구경향은 서구의 모델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주류 디자인사로서의 소위 식민지 학문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미의 전통적 역사인식의 정형화된 틀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역사편찬 모델인 문화사를 한국디자인사 연구에 접목시키는 시도는 물론 쉬운 작업만은 아니다. 열려진 접근만큼이나 일관된 틀이 부재한, 어쩌면 혼란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문적인 체계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사는 한국디자인사학이 처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악용될 여지보다는 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디자인사 편찬에 관한 한 주변국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디자인사 연구에 던져주는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비약 가능성은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원초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결정적인 결함으로 지적되는 사료 부족의 현실을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다. 문화사 중에서도 특히 미시사적 방법론은 미세한 텍스트(소우주)를 통해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시적인 역사(대우주)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비견된다. 원래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희귀한 법이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담론을 소유한 기득권층에 의한 왜곡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비록 양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사료라 할지라도 역사를 폭넓고 깊게 읽을 줄 아는 연구자의 창의적 시각이 뒷받침된다면 풍요로운 연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정된 그리고 소박한 식재료도 다양한 요리법에 의해 풍성한 식탁이 차려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사, 특히 미시사라는 연구방법론의 적용은 한국디자인사 관련 메뉴를 다채롭게 만듦으로써 연구의 양과 깊이를 풍부하게 만든다.

둘째, 문화사가 상대적으로 최신 이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적 모형의 부재가 역으로 한국디자인사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평등성 및 자율성의 기회를 부여한다. 생산, 소비, 제도, 교육, 윤리, 전문성 등 기존의 공식적인 담론과 연관된 디자인 개념 및 그 역사를 보는 틀을 재수정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좀 더 총체적인 틀을 만들려는 문화사적 접근은 역사연구 결과물이 누적되어 있는 구미학계의 사학 전통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한국의 의제선점 개연성을 높임에 따라 디자인 역사 관련 담론의 생산자 입장에 서게 만든다.

셋째,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문화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학제적이므로 한국디자인사의 문화사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다양성을 담보함으로써 학문적 지평을 넓힌다.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심리학, 지리학, 철학, 문학, 한국학, 예술, 공예 등 인접 또는 근접 학문의 영역에서 이론 결실을 문화라는 그물망으로 건져내어 한국디자인사의 이론적 인프라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사 분야에서 조명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인접학문에 피드백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다학제적 지식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넷째, 한국디자인 관련 텍스트를 문화사적 시각으로 독해할 경우, 한국디자인사 연구가 관련학문 공동체의 영역 내에서만 소통되는 자체적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소통을 꾀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사의 인식 틀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드리워진 식민지, 전쟁, 분단 등의 어두운 그림자 덕분에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공식적 역사의 장 안에서든 민중들은 구체적인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전쟁의 와중에도 사람들은 주변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디자인사가 평범한 대중들의 일상을 연구 영역으로 격상시킬 때 한국디자인사의 진정한 대중화가 달성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 김기봉, "단단한 근대와 '부드러운' 근대," 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 창간호, 푸른숲, 2000, pp. 141-70.
- 김진송, 서울에 탄수소를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2권, 역사비평사, 1998.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 Dilton, Clive, "The State of Design History," Part I & II, Victor Margolin(ed.), Design Discours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 213-50.